

문화단신

■ 계간 '유심' 격외시단 신설
매호마다 시·시조 6편 선정

시단에 새로운 시상제도가 생겨 화제를 모으고 있다. 계간 <유심>이 '격외시단(格外詩壇)'을 설치한다고 최근 발간된 겨울호를 통해 밝혔다. <유심>은 내년 봄 호부터 매호마다 4명의 시인과 2명의 시조시인의 작품 1편씩을 선정 시상한다. 선정된 작품에 대한 원고료는 편당 1백만 원. '격외시단'은 1980년 이후 중단하여 꾸준한 작품 활동을 하는 시인과 시조시인을 대상으로 7인의 선정위원회가 선정 한다. <유심>은 봄 가을호의 선정 위원에는 고봉준 김경수 김수이 박순연 박찬일 유성호 이지엽 씨가 여름 겨울호에는 강동우 김용희 방민호 이상천 이홍섭 홍성란 홍용희씨가 위촉됐다고 밝혔다. 격외시단에 선정된 작품은 <유심>에 발표되며 선정 작가는 원고료 외에 만해축전에서 기념 메달도 받게 된다. '격외시단'의 신설로 <유심>은 매년 중단 후 10년 전후의 시 시조 평론 작가를 대상으로 하는 '유심작품상'(각 부문 상금 5백만 원)과 '유심신인상'(상금 3백만 원) 등 3종류의 시상 제도를 운영하게 됐다. 한편, <유심>은 '유심신인상'의 경우 내년부터는 봄호에서만 선정하기로 했다. 임연태 기자

■ 양창제 생활불교미술展
구미문화예술회관(24일 까지)

선화가 양창제의 생활불교를 주제로 한 미술 전시회가 12월 24일까지 구미문화예술회관 제2 전시실에서 열린다. '42년생이 42년 그린 42점의 전시회'란 이색 제목으로 마련된 이번 전시회에서는 '연꽃만양' '단청' '풍경소리' '부처님' '달마도' 등 42점이 선보인다. 양씨의 그림은 대체로 연한 파스텔톤이다. 그래서 얼핏 보면 빛바랜 벽화같이 보인다. 소재도 주로 연꽃이나 단청, 풍경 등 사물에 가만 흔히 볼 수 있는 일상적인 것이어서 친근감이 든다. 여기에 그가 20여년 이상을 그려온 달마도 함께 벽에 걸렸다. 특히 양씨의 달마도는 대부분 인자하게 웃는 달마대사를 표현해 보는 이들에게 편안함을 느끼게 해준다. (054)452-1323



양창제의 '연꽃 만'.

'특화'된 옷 입고 대중과 호흡

2004 문화 결산



사찰 특성 살린 축제
지역경제 한 몫
콘텐츠 부재 등 과제로

스님, 신부, 수녀 등 성직자들이 가수로 초청돼 공연한 2004 문화 청량사 산사음악회.

6-7년전부터 지역민들에게 사찰을 알리려는 목적으로 하나둘씩 시작된 '산사음악회'가 올해 들어 비로소 불교 문화포교의 대명사로 자리를 굳혔다는 평가다. 실제로 최근 2-3년간 산사음악회는 경제 한파로 주춤한 듯 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30여곳에서 산사음악회가 개최됐고, 올해는 전주 정혜사, 단양 광덕선원 등 처음으로 열리는 곳을 포함해 확인된 곳만 40개 사찰이 넘는다. 이중 산사음악회의 원조격인 문화 청량사 음악회, 단양 광덕선원 음악회, 영주 부석사 부석문화 축제 등 10여 곳은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지역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영주 부석사 총무 도원 스님은 "산사음악회가 포함된 지역축제는 일반민들에게 사찰을 알리는데 효과적"이라며 "콘텐츠만 좋다면 사찰에 큰 예산이 없어도 지방자치단체들의 지원을 받아 음악회를 열 수 있을 것"이라고 노후를 알려준다.



박범훈 중앙대 부총장이 아시아오케스트라를 지휘하고 있다.



12년간 8만 4천 창작 단청문양을 개발한 김은호씨.



서울 법원사 불일미술관 '가톨릭과 불교미술인의 만남' 개막식.

40여 산사음악회 지역축제로 확산
창작 및 종교화합 공연·전시 풍성

불교음악가들의 개인적인 활동에서 가장 두드러진 이는 박범훈 중앙대 부총장이었다. 지난 5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한국, 중국, 일본 3국의 불교음악인으로 구성된 아시아 오케스트라의 지휘봉을 잡고 '불향(佛香)'을 주제로 연주회를 가졌다. 또한 박 교수에게 있어 올해는 음악인생 40주년을 맞는 특별한 한 해였다. 그래서 11월 11일 서울 센트럴시티에서 '소리(緣) 40주년 기념의 밤'을 주제로 그의 제자들이 음악회를 열어줘 가슴깊은 감동의 시간을 만들었다. 이자리에서는 국악 교성곡 '용성'을 비롯해 무용 관현악 독주곡 중주 오페라 마당놀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수백 곡을 작곡한 그의 창작열에 큰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국내작품중 해외영화제 최대 초청작이라는 신기록을 수립하며 국내보다는 오히려 해외에서 인기를 끌었던 '동승'이 오페라로 만들어져 공연 이틀 동안 많은 관객들을 불러들였다. 미술전시 또한 북돋워줄 열었다. 특히 여느때와 달리 선박물관들의 특별전이 활발하게 기획됐다. 송광사는 불교문헌 회귀본전을, 통도사와 미륵사 그리고 지지는는 배불행화전을, 수덕사는 한국의 불복장 특별전을 열어 산사를 찾은 참배객들의 발길을 박물관으로 돌리게 했다.

개인전도 많았다. 특히 12년간 8만 4천문양을 개발한 김은호씨의 단청전과 7년간 중국의 동화 벽에서 동화를 현대적 기법으로 재구성한 서용씨의 작품전은 높은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강렬한 오방색으로 한국적인 미를 조화롭게 표현해 사후 근대 채색화의 대가로 평가받고 있는 박성광 화백의 탄생 1백주년 회고전은 현대 불교미술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남겼다. 특히 이 전시회에서는 박 화백의 진주농고 동창이었던 최담 스님 영정 등 미공개 작품 10점도 공개돼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미술을 통해 종교 화합을 다지는 뜻깊은 자리도 서울과 대구에서 잇달아 마련돼 귀감이 됐다. (사)불교문화산업기획단이 12월 8일 서울 법원사 불일미술관에서 개최한 '가톨릭과 불교미술인의 만남'과 한국전통문화미술인회가 대구 문화예술회관에서 불교 기독교 천주교 원불교 등 4개 종교 대구경북지역의 작가들을 초청해 12월 19일까지 연 '사랑·나눔·자비·평화의 합창展'이 그것이다. 이외에도 제 5회 광주비엔날레에서는 강익중, 홍호섭, 이한수씨 등 10여명이 불교를 소재로 한 작품을 출품해 이목을 집중시켰고, 만해기념관에서는 만해 스님과 관련된 역사 인물의 작품을 한 데 모은 '만해 한운과 그 사람들'을 주제로 전시회를 열어 만해 스님 열반 60주년을 뜻깊게 기념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조계종 불미전 현대분야 제외 공방
무용·연극분야 '제자리 걸음' 아쉬워

올해로 제20회를 맞이한 조계종 불교미술전의 공모작품 장르 규정에 대해 불교미술 관계자들끼리 의견이 엇갈린 논란이 됐다. 현대불교신문을 통해 윤범모 교수(경원대)는 현대분야를 제외시킨 것은 모순이라고 질타했고, 조계종 문화부는 전통을 중시하는 것 뿐이지 현대적인 일반 작가들의 공모를 막은 것은 아니라고 일축해 뜨거운 공방이 되기도 했다. 음악과 미술의 결산 기산도가 '맑음'이었다면 무용과 연극, 방송은 '흐림'으로 평가된다. 우선 무용계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꾸준한 불교 무용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손재현 동국대 교수가 원호 스님의 일생과 정신세계를 창작발레로 재구성한 불교무용 '원호'를 초연했다. 또 법현 동국대 교수 스님의 해외 연산대 공연, 동희 스님의 '육법공양', 능화 스님의 '정기공연' 정도가 열려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다. 연극은 홍사옹 씨의 유작인 '출가' 이후 뚜렷한 불교소재 연극을 찾아볼 수 없어 아쉬움을 남겼다. 방송 분야를 살펴보면 공중파 등 일반 방송에서 불교 관련 프로그램은 유독 접하기 어려웠던 한 해였다. 예년에 비해 공중파TV의 부처님오신날 특집 프로그램 수도 줄어들었으며, 그 동안 종종 선보였던 불교 소재 다큐멘터리 등도 MBC 스페셜 '출가' 등 한 편을 제외하고는 새롭게 제작된 프로그램이 거의 없었다. 불교계 내의 방송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불교방송은 광고주연합회가 조사한 정취를 조사에서 종교방송 5사중 하위권에 머물렀고, 불교 TV도 신선하고 경쟁력 있는 콘텐츠의 부재로 시청률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미도'와 '태극기 휘날리며'가 1천만 관객을 돌파하며 국내 영화계가 호황을 누리는 가운데 불교 영화는 고작 '달마야 서울가자' 뿐이었다. 그래도 지난해엔 '오세암'과 '봄 여름 가을 겨울...' 등이 흥행에 성공하지 않았지만, 해외 영화제에서 상을 받는 등 체면은 유지한 정도였다. 하지만 올해에는 '달마야 서울가자'마저 흥행에 실패하며 불교 영화계도 함께 침체의 늪에 빠졌다. 새해에는 국내 영화계의 호황에 편승해 불교를 소재로 한 영화가 많이 제작되길 기대해 본다. 김주필 기자 jkim@buddhapia.com

山藥으로 효력을 높보십시오
1. 蔓蔘(만삼)을 권합니다
최상의 신비스러운 영약!
저는 강릉도 경선 불암사 신도로서 주지스님의 권유로 심심 산 갈피 山田을 아끼아하여 만삼재에 성공했습니다. 몇부의 전대 내오는 이아기는 여자로에겐 신삼보다 효능이 좋아하여 영문대가 부인불만이 태산 후 몸조리에 사용할 정도로 귀한 약재로 권하게 되었습니다. 만삼은 특성이 전혀 없고 성질이 평하여 재물에 관계없이 男女老少 누구나 먹을 수 있으며, 어떠한 식후에도 구할이 잘 맞는 좋은 건강식품이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만삼을 복용 후에 자양을 합니다. 이와 아울러, 중국문헌에는 고려인삼보다 효력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강릉산삼(長鬪山蔘)을 복용하고도 별 효험을 못보신 남자, 여자분들이 만삼(蔓蔘)을 드시고 탁월한 효험을 체험하신 분들이 많아 주분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 약효를 보신 분들의 이야기 ★
● 기압저하가 좋아졌다. ● 뱀배가 나았다.
● 만성위염이 나았다. ● 열색이 좋아졌다.
● 사지마비증이 나았다. ● 기력이 좋아졌다.
● 전신이 열려졌다. ● 백혈병이 나았다.
● 만성피로가 없어졌다. ● 아프던 무릎관절이 안 아프다.
● 몸이 부기가 빠졌다. ● 손발이 저리고 시린 것이 없어졌다.
● 입과안이 시원해졌다. ● 사근 율곡이 없어졌다.
◆ 스님들께는 시주불사하는 마음으로 열거에 드리고자 합니다. (성물 : 시술가 10g당 40만 원당 20만 원에 드려진사 30g, 단, 10g 단위 이상만 택배가 가능합니다.)
◆ 사민분들 : 스님들께는 불타님들의 발자취와 같은 성령을 감시드리는 마음들 있었습니까? (100% 환급)
만삼인삼을 만삼 10kg -참가- 전대 삼지귀삼 5kg 내수 감초
● 1Box(160포) -20만원 ● 2Box(1420포) -35만원
◆ 주소 : 강원도 정선군 북면 호수리 323번지
◆ 연락처 : (033) 563-8292, 562-2165
◆ 성 명 : 심정택 H.P : 011-9242-8292
◆ 동계회번호 : 315024-62-012392 (예금주 : 심정택)

매일경제신문 인제 경영학 연재 -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 해독다이어트 ☆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수십년간 몸안에 쌓인 온갖 노폐물이 빠져나와 체중감량이 된다는 이강욱 교수의 20여년 임상경험은 비만인들에게는 귀가 번쩍 뜨이는 희소식이다.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자가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가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압박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져,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실법
똥똥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기처럼 속이 쌓이고 관련 사 이 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혈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해 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발효원액은 우리몸에서 자란 50여종의 야채, 과일, 해조류 등을 3~5년간 장기간 자연발효 숙성시킨 것으로 그 속에는 천연비타민과 미네랄, 수액의 효소들이 살아 숨쉬고 있다. 이것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인체의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효소는 인체 곳곳에 마치 쓰레기처럼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과잉으로 축적되어있는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 대수술을 일상 생활 중에 소리없이 진행한다.
02)523-0708 초록원 (팔보효소)

"토르말린, 수정석, 맥반석 등의 천연광물이 뿜어내는 그 시원하고 후끈후끈한 열기, 이것이 바로 이열치열!"
원칙의선
불가마
형식승인번호(안전인증번호) : HU07305-2001A
5분 충전! ▶▶ 3시간 연속찜질!
딱 한번만 무료체험해보십시오!
후끈후끈한 원칙의선 열찜질!
몸 속 깊이 침투하는 그 시원함!
정말 놀랍습니다.
추석효도선물 목초수액시트 30매 증정 특별가 13만원
● 불과 5분 충전으로 3시간동안 연속찜질 OK!
● 전원차단으로 무선험질, 유해전자파 걱정 NO!
● 언제, 어디서나 휴대할 수 있는 편리성 YES!
저렴한 가격으로! 경제성도 그만!
○ 제품의 특성
● 최신티슈공법에 의한 건조한 제품
● 수많은 실험으로 안전성, 기능성 확보
●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몸의 어느부위에도 밀착성 우수
● 내부 발열온도 135℃, 표면온도 60~70℃
● 원적외선과 음이온 다량방출
(원적외선 방출률 약 90% 음이온 182/cc)
○ 주요 용도
● 노약자 보온 및 무릎, 어깨, 관절 찜질
● 여성들의 아랫배, 손발을 따뜻하게
● 학생이나 직장인의 목, 어깨 찜질 또는 베개대용
● 아픈곳이나 다친 곳의 찜질
● 낯시, 등산, 야영, 야외 작업시 보온용
● 휴고습기전 곳에서 보온용
■ 저매품 : 정증(3g 30포) 45,000원, 크로켈라 (200ml 1600정) 75,000원
www.bb21.com 상담실 : 02)969-8080

두뇌과학의 혁신. 기억력 창의력 증강
전통불교 공법으로 대중적이지 않은 1:1의 교육으로 확실하게 전수해드립니다
◆ 도(道)를 닦거나 기공수련의 기초 관문인 경락소주천(經絡小周天) 운행을 기공사가 직접 1개월 이내에 완성시켜 드립니다.
◆ 11~13세 미만 아이들에게 대뇌를 개발하고 인체투시(천안통, 천이통)기능을 1주일에 완성시켜 드립니다. (기억력, 창의력 증가)
◆ 6세 미만 병어린 아이들을 말을 하게 하고 16세 미만의 간질형 아이들을 경기 툭, 확실합니다.
◆ 얼굴형 교정(광대뼈 두드러지고, 넓은턱), 거칠은 피부, 검은피부를 부드럽고 예쁜 하얀 피부, 얼굴로 바꿔 드립니다.
◆ 불일때문에 걱정하시는 분(아기를 낳고 싶으신분) 해결해 드립니다.
◆ 척추디스크, 심혈관 계통(혈액순환기 계통), 소화기 계통, 난치병(폐장암, 위장암, 대장암, 당뇨, 뇌졸중, 관절염)등 중병 질환에 특수한 인체조절, 예방효과가 있는 氣功 수련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 말로, 책으로는 도저히 가르칠 수 없는 생명쌍수(性命雙修) 수련법 전수를 전수해 드립니다. 경락소주천과 대주천을 완벽하게 운할 수 있는(인연이 닿는 분은 3개월 이내) 기공사(기공치료 의사)를 양성합니다.
무료 상담 환영
대불통령내단공(大佛通靈內丹功)修練院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98-3 르네상스아파트 1212호 (교대점문서거리)
TEL : 02)3471-7277
H · P : 016-299-4864 / 016-214-4864